

뉴욕 원각사 조실 법안 스님 입적

미국 뉴욕 원각사 조실 법안 스님(사 진)이 한국시각 3월 27일 오후 2시 원각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1세. 법안 스님은 1956년 직지사에서 관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0년 조계사에서 동사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56년 전북대 정치학과 졸업했으며, 1972년 동국대 부총장 역임했다. 1974년 미국 현지 포교원력을 세우고 미국으로 건너간 법안 스님은 송산 스님이 창건한 뉴욕 원각사에서 법회를 주도했다. 1976년 뉴욕 원각사 주지에 취임했으며 1988년 뉴욕대에서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직접 쓴 서예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어 포교 기금을 마련한 스님은 맨해튼과 필라델피아에도 법당을 개설해 포교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1989년 미주현대불교신문사를 창간하기도 했다. 스님은 2005년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이 미주 포교 40주년을 맞아 뉴욕 아스토리아 월드매너에서 봉행한 법회에서 '한국불교를 빛낸 사람들'에 선정돼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복지는 중생에 다가가는 불교의 진면목”

복지포교 30년 무차대법회 연 성운 스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때, 불교계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사진)은 3월 23일 지역사회 복지포교 30년을 기념하는 ‘무차대법회’를 봉행하고, 불교계가 노인복지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아동·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사업을 꾸려 왔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노인복지라는 인식 때문이다. 불교 복지계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성운 스님. 스님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불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살피고 국가나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1978년 서울 은평구 삼전사에 자리를 잡은 스님은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찰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소년소녀가장의 부모 노릇이며 독거노인의 자녀 역할을 하면서 복지시설 건립을 발원했다. 10여 년 간의 준비 끝에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위탁 운영했다. 97년에는 법인 직영으로 인덕어린이집과 인덕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됐다. 이후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구립 어린이집, 은평구립도서관, 연촌노인복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수탁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만 2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지난 한해 시설 이용 인원만 530여 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스님은 ‘규모’나 ‘시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위탁·수탁 운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더라도 불교계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국의 각 사찰들도 재정 형편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시설이라도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교가 아니겠습니까?”

“포교·봉사·공부를 화두삼아...”

제7대 서울시의원불자회 이종필 회장

“갑작스럽게 회장을 맡게 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라의 일꾼으로 청렴하고 정직하게 공직에 임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창립한 제7대 서울시의원 불자회 회장에 추대된 이종필 의원(서울시의회 부의장, 용산구·사진)의 각오다. 제7대 서울시의원 불자회에는 정병인(도봉구) 부두원(노원구) 이진식(동작구) 의원 등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서울시 의원이 106명인데 비하면 결코 많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앞으로 불자 의원을 점차 늘려 나가는 한편, 시와 불자 시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민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고 청렴하게 의원활동을 하는 한편,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선거구 의원으로 5~6대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27일 법회에는 해사 스님(도선사 주지)과 재현 스님(봉은사 교무국장), 조계종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불자회 창립을 축하했다.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 법회



세계불교 임제종은 3월 18일 총본산 김해 송원사에서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법광 혜공 스님은 “임제종의 선풍진좌와 합리적인 중단운영으로 중생교화의 증추종단이 될 것”을 다짐했다.

관음사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대구 영남(한국)불교대학 관음사 부설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이 3월 28일 개원했다. 노인전문 요양원 무량수전은 일상 생활 서비스는 물론 상담 의료 여가 활동 지역사회 봉사 서비스를 실시하며 65세 이상 치매 중증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포교사 품수식 개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김재일)는 3월 24~25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제5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60명에 대한 연수 및 품수식을 개최했다. 김재일 회장은 합격자들에게 “더욱 열심히 정진해 지역과 사회에서 필요한 포교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KTX 운행 3주년 기념법회



한국 KTX불자회(회장 강신욱 기장)는 3월 26일 철도공사 강당에서 양현욱 서울지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X(고속철도) 운행 3주년을 기념 안전운행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대교종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은 “KTX 열차를 법당으로 삼아 수행하며 가족을 사랑하라”고 법문했다.

스포츠 스타들 승가원서 봉사활동



스포츠 스타들의 봉사 모임인 함께하는사람들이 3월 24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장윤창(배구) 이진택(농이뛰기) 정재은(태권도) 선수 등 23명의 선수들이 참여했다. 선수들은 100인분의 자장면을 만든 것은 물론, 운동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일주문

- 연향 신도교육 강좌 개설**
송광사 주지 영호 스님은 4월 10일 순천 포교당 대승사 연향 신도교육 강좌 불교 기초교리와 금강경 강의 개설한다.(061)755-0107
- 금강산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4월 26~28일 신계사와 법기암 등 참배하는 ‘금강산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한다.(02)734-6401
- 서울노인복지센터장 취임**
파주 보광사 주지 일문 스님은 4월 1일자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원장에 취임했다. 4월 10일 신인 관장 취임 기념 시사 교양강좌를 연다.(02)739-9501
- 정기무료의료검진 실시**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 구자선 단장은 3월 24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3차 정기무료의료검진을 실시했다.
- 미 대사부인과 자선전시회**
불교여성개발원 김민숙 원장은 3월 28~29일 서울 이태원 갤러리 고색에서 리사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부인과 장애아들이자선 장신구전을 개최했다.

지난호(621호) 6면 미륵종 승계수계법회 기사와 관련 수계를 받은 스님은 영경 영산 영명 자용 대안 스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이시애의 신간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도서출판 이시애문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el: 02)2004-8246(출판부), 02)2004-8219(영업부), Fax: 02)737-0696

이시애문

“어느 것에서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이라는 임제 스님의 종지에 따라 어디에서나 분별이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법현 스님의 사자후!

法玄

자기의 옛거울 하나가 시방세계를 고요히 비출 뿐 옛거울에는 분별심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분별심이 본래 없는 데서 참구하는 화두를 바르게 깨치면 마음이 열려서 자기의 옛거울을 참으로 밝히게 되는 것이니 범부가 바로 성불하는 최상승 조사선의 도리이다.

“눈병이 난 사람이 두 가지로 헛보이듯이 중생의 분별심은 생사를 돌로 보게 합니다. 생사를 헤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니, 분별심을 끊어 버리면 바로 자기의 마음 눈병이 치료되어 본래 생사가 없는 일심진여법계(一心眞如法界)가 현전(現前)하게 됩니다.” - 법문 중에서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이시애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시애문 : 02)737-0695